

2050년 광주·전남 10명 중 4명 '나 혼자 산다'

호남통계청 '1인가구, 주거변화'

광주 1인가구 34.5% '전국 9번째'
30여년 뒤 광주 40.3%·전남 42%
전남 70세이상 고령자 절반 차지

이미 10명 중 3명이 혼자 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이 30년 후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의 경우 30년 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돼 복지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

남 1인가구, 주거변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광주지역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21만 2385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인 가구가 16만7494가구로 27.2%를 차지했으며 4인 이상 가구 12만 1433가구(19.7%), 3인 가구 11만4381가구(18.6%) 순이었다.

지난 2015년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5.7%p 늘어난 반면, 3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는 각각 1.8%p, 6.8%p 감소했다.

통계청은 20여년 전인 지난 2005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1%에서 34.5%까지 증가한 사실을 토대로 오는 2030년에는 36.9%, 30여년 뒤인 2050년에는 40.3%에 이를 것으로 전

망했다.

특히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에 따라 지난 2005년 1인 가구 중 29세 이하 비중은 31.4%였지만, 오는 2050년에는 8.8%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13.0%였던 70세 이상 비중은 2050년 36.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21년 기준 광주지역 1인 가구 비중은 동구가 4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구 36.0%, 북구 35.4% 순이었으며 남구 1인 가구 비중은 광산구가 54.1%로 가장 높고, 여사 1인 가구 비중은 남구가 54.5%로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도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35.3%인 27만4108가구가 1인 가구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했다.

2인 가구는 25만8205가구로 33.2%를 차지했으며 3인 가구는 12만9010가구(16.6%), 4인 이상 가구는 11만6035가구(14.9%)였다.

2015년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4.9%p 증가했으며 3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는 각각 1.6%p, 4.8%p 감소했다.

전남은 2005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1%였지만, 오는 2030년에는 37.4%, 2050년에는 42.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5년 1인 가구 중 29세 이하 비중은 9.8%였지만, 2050년에는 4.3%로 감소, 70세 이상 비중은 35.0%에서 2050년 55.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기준 전남에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곡성군(43.1%)이었으며 신안군(41.6%), 고흥군(41.5%) 등이 뒤를 이었다. 남자 1인 가구 비중은 광양시(58.4%)가 가장 높았으며 여자 1인 가구 비중은 장흥군(60.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1인 가구 비중은 33.4%로, 34.5%를 기록한 광주는 전국에서 9번째, 35.3%를 차지한 전남은 전국에서 8번째로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모두 평균을 상회했다. 광주의 경우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울과 대전 다음으로 가장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봄 맞이 코스메틱페어' 광주신세계는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코스메틱페어를 열고 다양한 메이크업소와 화장품 마일리지 적립 리워드 행사 등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에스티로더, 비오템 등 화장품 브랜드 총 80여개가 대거 참여하며 랑콤, 비오템, 키엘, ysl 브랜드에서는 2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할인권을, 에스티로더에서는 2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금호타이어, 전국 대리점주와 '금호 멤버스 데이'

영업·마케팅 정책 설명회 가져

금호타이어는 지난 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ICC호텔에서 '금호 멤버스 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금호 멤버스 데이'는 금호타이어의 전국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매년 연간 영업·마케팅 정책을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목표를 함께 한다'는 '원 팀 스피릿'을 주제로 금호타이어의 타이어프로·KTS 대리점주 및 임직원 등 4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호타이어는 2022년 경영실적 및 2023년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영업·마케팅 정책 등을 발표하며 대리점주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또 지속적으로 회사 매출 및 성장에 기여한 우수 유통망 80여개소를 선정해 감사패를



금호타이어의 '금호 멤버스 데이' 행사가 지난 8일 대전 ICC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전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금호 멤버스 데이'를 5년만에 개최하면서 대리점

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회사와 대리점주의 원팀, 원골, 원스피릿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천지주유소 일시 영업중단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천지 휴게소(목포방향) 내 주유소 영업을 오는 13일부터 5월11일까지 60일간 일시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영업중단은 주유기 노후시설 개선 및 유류 탱크 교체 공사로 인한 것이다.

주유소 영업중단 기간중에도 휴게소와 수소충전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장기간의 주유소 영업중단으로 인해 고

객 불편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며 "공사 기간동안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충분한 급유를 하거나, 인근 주유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근주유소는 고속국도의 경우 서해안선 고창고인돌(목포방향) 주유소와 무안광주선 함평나비(광주방향) 주유소를 이용하면 된다. 또 일반국도는 무안나들목과 북무안나들목 인근주유소를 이용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학생증 체크카드 이벤트' 마련

광주은행은 오는 5월31일까지 '2023년 학생증 체크카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은행과 학생증 체크카드 협약을 맺은 대학교(전남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 동신대, 동강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목포해양대, 호남신학대, 기독간호대, 초당대, 보건대)의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이용권, 스타벅스 음료 쿠폰, 편의점 쿠폰 1만원권 제공 총 3가지 내용으로 진행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이용권 제공 이벤트 응모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제공하며 오는 6월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스타벅스 음료 쿠폰 제공 이벤트 응모 후 학생증 체크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매월 3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편의점 쿠폰 1만원권 제공 이벤트 응모

후 학생증 체크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 시 선착순 300명에게 GS25 편의점 쿠폰 1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스마트뱅킹(APP),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학생증 체크카드는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과 더불어 비대면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QR코드나 URL 주소로 접속해 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마음을 다스리는 증용에서 시작되는 투자

사서삼경의 진수는 증용(中庸)이다. 한 줄로 압축하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면서 늘 최적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다. 투자자가 동양철학까지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증용의 이 한마디만큼은 모든 투자자가 지켜야 할 금과옥조다. 증용의 과함과 덜함은 투자의 세계에서 탐욕과 공포로 바뀌 부를 수 있다. 많은 투자 지침서에는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야만 성공한 투자자로 남을 수 있다고 자주 언급된다.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야 한다'고 했던 앙드레 코스톨라니나 '심

리투자 불변의 법칙'을 낸 마크 더글러스 같은 투자의 대가들은 '투자의 90%는 심리'라고 말한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탐욕과 공포가 얼마나 투자를 망쳐버리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고 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끊임없이 증용을 생각하면서 그 상태를 발견하고 유지하기 위해 힘쓴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는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

다.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60%만 이겨도 돈을 벌 수 있다. 아무리 기술적, 기본적 분석에 능하다고 해도 심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실패할 위험이 크다.

심리를 가장 크게 어지럽히는 요인중 하나는 '빛 투자'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빛을 낸 투자자는 프로 투자자가 아니라면 탐욕과 공포 사이를 헤매다 주저앉을 확률이 높다. 빛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맞다. 보통의 투자자는 늘 탐욕과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렵다면 분산투자(포트폴리오 구성)와 분할 투자로 마음을 안정시켜보자.

분산 투자는 크게는 자산의 종류를 분산한다. 고금리나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자제하고 5-6개 종목으로 분산하면 위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분산된 각 종목을 분할해서 여러 번 쪼개 매수·매도하는 것도 많은 투자자들이 실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런 단순한 것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투자자가 분산투자를 했는데 한 종목만 급격히 상승하면 '그 종목에 집중투자 할 걸' 하고 금방 후회한다. 분할투자도 마찬가지다. 여러 번 쪼개서 샀는데 그곳이 바닥이었고 곧바로 상승이 시작되면 '한번에 다 사버릴 걸' 하면서 아쉬워한다. 탐욕이다. 여기에 집중 투자한 종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공포가 시작된다. 탁월한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법을 무시해도 된다. 그러나 평범한 투자자라면 단순하고 쉬운 위험 분산의 원칙부터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용이다.